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14호
해외동향

주요국의 비만 현황 및 대응 방안

김유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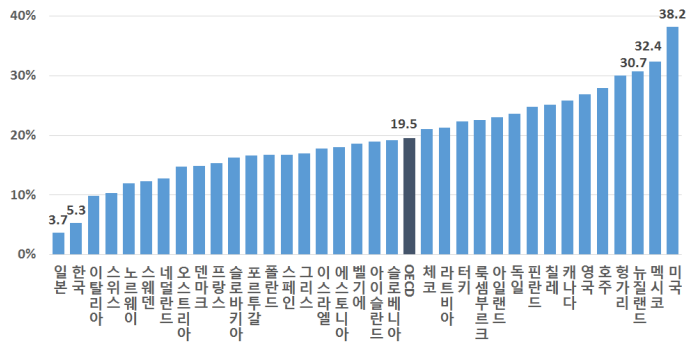
요약

성인 비만율은 OECD 평균 19.5%로 199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비만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신장질환 등의 위험과 장애수명손실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함. 각 국에서는 비만퇴치를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 비만 유발 음식료품의 조세 강화 등 다양한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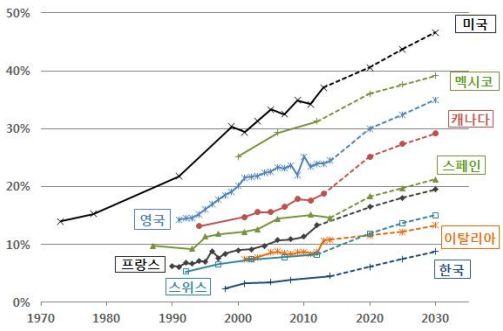
OECD 국가의 성인 비만율은 19.5%로 199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1] 비만아동의 증가속도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30% 높게 나타남

- 성인 비만율은 미국과 멕시코가 각 38.2%,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과 한국이 각 3.7%, 5.3%로 가장 낮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미국의 비만율은 2030년에 46.6%까지 증가하여 성인 2명 중 1명은 비만일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 스위스는 현재 낮은 수준이나 8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그림 2〉 참조)

〈그림 1〉 성인 비만율



〈그림 2〉 성인 비만율 추이



자료: OECD(2017), Obesity update

1) OECD(2017), Obesity update

-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14년 기준 4,100만 명이며, 특히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만아동의 수가 199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2)]
  - 개발도상국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정크푸드 섭취 증가 등이 비만아동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 비만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 성인보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3)]

2015년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장애수명손실연수[4)]는 건강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5)]

-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만(BMI가 30 이상)인 사망자의 41.4%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당뇨병은 9.5%, 신장질환은 4.7%인 것으로 나타남
- 비만으로 인해 장애수명손실연수가 증가한 사람 중 33.7%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이었으며, 18.0%는 신장질환, 4.7%는 당뇨병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수명손실연수를 발생시키는 요인들 중 비만이 당뇨병, 흡연, 고혈압보다 수명을 47% 이상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6)]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7)] 각 국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료품에 대한 조세 강화 등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 몇몇 주에서는 비만환자가 건강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8)] 멕시코에서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측정기 위에서 스쿼트를 10회 할 경우 승차권을 제공해주는 등[9)] 스스로 체중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비만을 유발하는 정크푸드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료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소

---

2) WHO(2016), Ending Childhood Obesity
3) 오상우(2015), 소아청소년 비만의 국내·외 정책소개와 관리 전략,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 건강보장 정책토론회
4) 장애수명손실연수(Disability-adjusted life-years)는 조기사망으로 인해 손실된 수명연수(손실수명연수)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애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장애연수의 합을 뜻하는 것으로 건강수명과 관련한 지표임
5) The GBD 2015 Obesity Collaborators(2017. 7), Health Effects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195 Countries over 25 Years ,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6) Cleveland Clinic(2017. 4. 22), Obesity is top cause of preventable life-years lost, study shows , ScienceDaily
7)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총 보건지출의 1~3%(미국은 5~10%)를 비만 관련 질병에 지출하고 있고 그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8) OECD(2014. 6), Obesity update
9) Mexico News Daily(2015. 1. 27), Subway ticket worth 10 squats in DF

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음[10]

- 프랑스는 가당음료 1.5리터당 11유로센트, 헝가리는 소금·설탕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 멕시코는 1리터당 1페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는 1온스당 1센트의 소다세를 부과하고 있음
- 프랑스는 소다세 시행 2년 만에 가당음료 소비가 6.7% 감소하였으며, 미국은 소다세 시행에 맞물려 탄산음료 소비가 21%나 감소하였음[11]

그 밖에도 미국에서는 Let's Move 캠페인을 통해 학생이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Sport's Badge for Youth 캠페인을 통해 신체활동 테스트를 통과하는 청소년에게 뱃지를 수여하여 활발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있음[12] KiRi

10) 외교부(2016. 4), 「유럽의 비만세(Sugar tax) 도입 현황」
11) Falbe J, et al.(2016), Impact of the Berkeley Excise Tax on Sugar-Sweetened Beverage Consumption ,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2) 보건복지부(2016. 10. 10), 제7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